

9.5km 구간, 깊이 1m '지하 박스형'... 예산 925억원 절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건설되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결정됐다.

민선 5기 박광태 시장 재임기간 시작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이 결정되는 데까지는 꼬박 8년여가 걸렸다. 결국 민선 7기 윤장현 광주시장때 건설방식이 결정돼 임기 내 착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바뀌 때마다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건설방식은 예산절감과 안전성에 초점=윤장현 시장은 취임 이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예산 절감과 안전성, 기존 노선 유지와 함께 '임기 내 착공'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공사방식은 크게 3가지다. 지하와 노면, 지하 박스형으로 혼합형이다. 전체 41.9km 구간 중 28.2km 구간은 평균 지하 깊이 4.3m, 9.5km 구간은 평균 깊이 1m의 '지하철'이며 지상구간은 4.2km다. 지하 깊이란 지하철 상층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다.

토피층이 1m밖에 되지 않는 9.5km 구간은 지하 박스형태로 지어진다. 이처럼 건설방식을 변경한 것은 애초 저심도 방식에 비해 km당 80~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9.5km 구간을 이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9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시는 밝혔다.

광주시는 km당 140~15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지하 오픈형과 km당 110~12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지하 전정형도 고민했지만, 애초 원안을 고수해온 시의회의 반발 등을 고려해 결국은 지하 박스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깊이가 얇은 9.5km 구간은 송암고가 주변, 효동동 주변 2곳, 월드컵경기장 주변, 운남 1지구, 첨단과학단지 주변, 본촌산단 주변 등 7곳에 400m~1.7km길이를 분산했다. 지하 매설물이 없는 곳이다.

통상적인 지하철보다 깊이가 얇지만 2호선 열차는 경량 전철로, 열차 1량의 무게가 1호선 열차 1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 우려도 크지 않

첨단·광신대교 주변 지상으로

백운 고가 철거해 지하차도

건설방식 8년 논란 종지부

늦어도 9월까지 실시설계

다고 시는 설명했다. 애초 상층부에 슬라브를 덮는 공법도 검토됐지만, 특허출원이 반려되는 등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지상 구간은 첨단대교, 차량기지가 있는 광신대교 주변 등에 걸쳐 있다.

이와 함께 푸른길 공원 주변 백운광장 고가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2차선 규모의 지하차도가 들어선다. 당초 4차선이 구상됐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 반으로 줄었다.

◇사업추진 일정=광주시가 지난해 3월 20일 기본설계 용역을 중단할 당시 용역진행률은 95%였다. 자문 테스크포스팀,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원가 절감에 주력해왔고, 이날 최종 건설방식까지 발표한 만큼 기본계획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늦어도 9월까지의 국토교통부와 기본계획변경 및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다음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범수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기본계획 해제가 1단계, 국토부와 기본계획 변경 등을 거치려면 서너달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20개월 소요되는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경우 실시설계는 내년말에 끝나고, 윤 시장 임기 만료일인 2018년 6월 이내에는 첫삽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논란 종지부=기본계획이 승인된 지 22년, 윤장현 광주시장 재임 후 전 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1년 간 끊임없이 지속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24일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1996년 시작된 1호선(2004년 4월 개통) 건설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2002년 10월 길이 27.4km, 정거장 34곳, 지상고가 순환형, 사업비 1조3375억원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애초 2004~2009년으로 예상했던 건설시기도 2008~2019년으로 바뀌었다. 박광태 시장 재임 시절인 2005년 11월 시는 지상과 지하 사이 논란이 일자 고심 끝에 건설방식을 지상고가(地上高架)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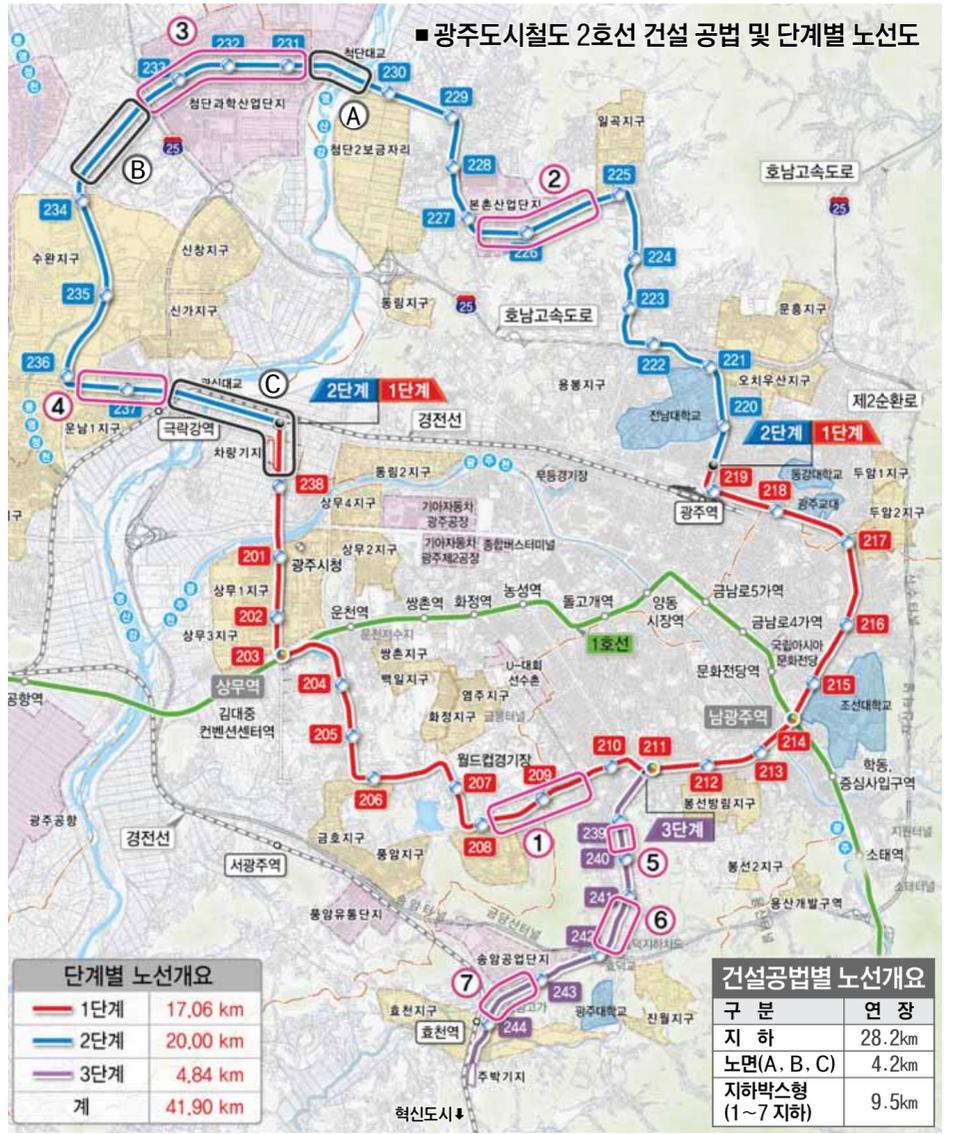
그러나 노선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사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운태 당시 시장은 건설방식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일부 시의원은 원안 추진을, 시민단체들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건설 여부를 묻는 시민 여론조사와 공청회가 있었다. 2호선 건설 사업은 그러나 2010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시는 2011년 11월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2013년 12월에는 지상고가에서 지하 저심도(低沈度)로 방식을 바꾸는 등 또한번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윤장현 시장이 당선되고 인수위에서 2호선 건설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여론조사 등 시민 의견수렴절차가 반복됐다. 결국 윤 시장은 2014년 12월 원안 건설을 선언해 논란을 종식하는 듯 했다.

하지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저심도 방식의 사업비가 정부 예산 승인액의 15%(최대 3000억원)을 초과하자 광주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 절감에 '올인'했다. 그러면서 저심도 외에 ▲저심도+노면(트램)+광주형 모델(반지하 또는 지상고가) ▲저심도+노면(트램) ▲노면전차(트램)형(노면전차+지하) ▲모노레일 중심형(모노레일+노면) ▲원안 고수형 등 5가지 건설방식을 제시했다.

결국 광주시는 이날 '원안 유지'라는 큰 틀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건설방식을 내놓으면서 기나긴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최연일기자 cki@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145) 선량

나서는 사람보다 내세울 만한 사람을 뽑자

나 덕성 등을 요구하지만, 인격이 고결한 것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 고매한 인격보다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큰 목적만 달성하면 그것이 좋은 지도자가 아닐까요?"

천년 제국을 경영했던 로마의 지혜와 로마인 이야기 통해 리더십의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켰던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진정한 지도자란 '국민의 행복'을 실현해주는 현실주의자여야 한다고 일갈

했다. 책에서 읽었던 '초월적 사고, 감성적 직관, 창조적 영감' 등 이상적인 리더십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있는 우리 사회를 힘차고 건강하게 구현해주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라는 역설 일 것이다. '나서는 사람보다 내세울 만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우리의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다. 몇 년 전 보았던 정혜련 작가(1977~)의 '가족으로 만든 영웅의 집'(2006년)은 안타까운 우리의



정혜련 작 '가족으로 만든'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국민의 대표라지만 권력 의지와 권위의 상징으로서 우리를 압도하는 국회의사당을 작가는 볼품없이 구

겨지고 쪼그라들게 표현했다. 영락없이 요즘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심란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부산 출신의 정혜련 작가는 조각을 전공했으며 가족 시리즈로부터 설치, 입체 드로잉 시리즈까지 늘 새로운 주제와 형식에 도전해오면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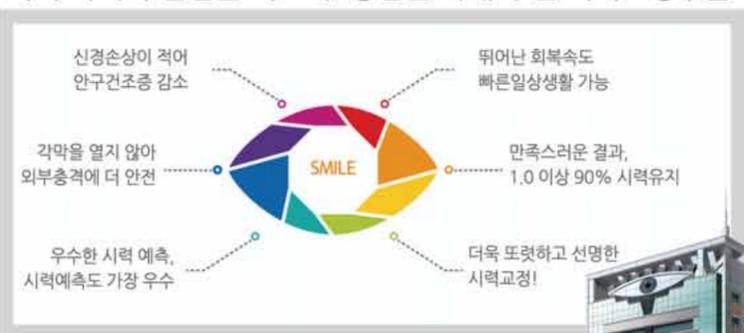
작가는 국회가 진정한 '영웅의 집'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 눈앞에 산적해있는 난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선량'들로 가득하게 되는 날, 텅 빈 껍데기처럼 공중에 부유해있는 집은 비로소 대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양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